



김동규 한창기업 회장이 직접 조성한 매화농원 '노리매' 곳곳을 소개하고 있다.

매일매일 매화를 보고 싶어 아예 고향 제주에 매화농원을 만든 중소기업인이다.

땅을 사고,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매화를 옮겨심고, 공원을 가꾸는데만 200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들었다.

매화에 끝 빠져서, 아니 매화에 미치지 않고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제주 서귀포에서 레미콘과 아스콘 회사를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한창 산업 김동규 회장. 김 회장은 한때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도 역임하는 등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김 회장이 91년 당시 제주 대정 구역 리 땅 1만평을 처음 사들이면서 조성을 시작한 매화농원 노리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자왈 도립공원이 가까이 있다. 노리매는 '놀이'와 '매화 매(梅)'를 합성해 '매화와 놀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 김 회장이 직접 지었다.

개인이 사재를 털어 만든 노리매는 현재 2만8500여 평으로 축구장 13개 넓이와 맞먹는다. 늘 매화 향기를 느껴보겠다고 시작한 일이 이쯤되면 매화에 치여살 수밖에 없을 법도 하다.

"처음 땅을 샀을 때가 평당 1만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20년 넘게 조금씩 사

들이는 동안 제주도 땅값이 엄청 올라 부지를 매입하는 데만 적지 않은 돈이 들었다. 지금은 바로 옆에 영어마을이 들어와 땅값이 더 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땅값엔 관심이 없다. 마음속엔 오직 매화 뿐이다.

김 회장은 매화테마공원을 만들겠다고 마음먹고 땅을 구입하는 중간 중간에도 전남 구례, 전북 순창, 경남 산청 등 매화가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안전하게 제주로 운반해 다시 복원하기 까지 엄청난 정성을 들였다. 돈도 좀 들어갔다(웃음). 쉽지 않은 일이었다."

김 회장이 노리매 한 쪽에 고풍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고택 이곳 저곳을 둘러보며 설명했다. 가끔씩은 그가 진공 관 앰프를 틀어놓고 노래를 듣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노리매 테마공원엔 매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름에 먹을 수 있는

을 들인 매화농원 노리매는 지난 2013년부터 개방해 지금은 일반인들이 보고 즐길 수 있다.

"한 때는 무료로 개방했었다. 하지만 농원 곳곳이 심하게 훼손되고 화장실 등 건물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의 입장요금만 받고 있다." 노리매는 현재 성인 기준으로 9000원의 입장료를 받는다.

김 회장은 많은 이들이 노리매를 보

앞만보고 달려오다보니 어머니가 좋아 하셨던 매화가 그립더라. 나무는 죽어도 향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 매화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심지를 곧게 만드는 것이 또 매화다. 그래서 공장보다는 이곳을 더 자주 찾는다."

김 회장이 매화에 빠져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것이 이젠 거스를 수 없는 일이 됐다.

어느새 입소문이 나고 유명세를 타면서 노리매는 주말이면 1000여 명이 훌쩍 넘는 이들이 다녀가는 제주의 명소가 됐다. 지난해엔 제주관광대상 관광자원화 기여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노리매가 영원히 이 자리를 지키며 찾으시는 많은 분들에게 매화향을 계속 전달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만들어 노리매를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 역시 30년 넘게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수 많은 한파를 견뎌왔다. 매화도 겨울을 잘 이겨야 이듬해 향기가득한 꽃과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의 매화 예찬가를 듣다보니 그가 이토록 빠져있는 매화는 바로 김 회장 자신과 다르지 않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91년부터 제주 구역리에 '노리매' 조성 시작 전국곳곳서 매화나무 수집... 3000그루 심어 ”

달려갔다. 매화나무를 사기 위해서다. 구입한 매화를 배에싣고 제주도로 갖고 오기를 수 없이 반복했다.

그렇게 사들여 노리매에 심어 놓은 매화나무만 약 3000그루에 달한다. 그 중엔 그가 부인에게도 가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매화분재 300점도 있다.

김 회장은 육지에 있는 옛집도 매입해 이곳 노리매로 옮겨놓았다.

"전남 강진에 있던 이 고옥은 1799년 기미년에 지은 것이다. 집을 해체하고,

제주도 토종풀인 하귤나무를 비롯해 녹차나무, 수선화, 수국, 조팝나무 등도 공원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연못의 중간에 멋들어지게 서 있는 정자는 서울 창덕궁, 양양 낙산사 등을 신·개축한 강원도 중요 무형문화재 흥완표 대목장의 작품이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제주도 전통배인 '테우'를 타고 들어가 정자에서 노리매의 또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다.

김 회장이 이렇게 수많은 정성과 돈

러 오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몇명이라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매화향을 느끼고, 힐링을 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매화는 겨울 동백꽃 다음으로 피는 꽃이다. 제주도 애선 2~3월이 매화 절정 기다. 이때를 맞춰 노리매는 매화축제도 연다. 올해 2월이 7번째 축제였다.

레미콘과 아스콘 등 한평생 건축자재 업에 종사했던 그가 이토록 매화에 심취한 이유가 궁금했다.

"모친께서 매화를 무척 좋아하셨다.

카페24 11일 '인플루언서 세미나' 개최

카페24가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사람)의 성공적인 이커머스 창업을 지원한다.

카페24는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1500여 명의 인플루언서가 참석하는 '카페24 성공 인플루언서가 온다' 2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700여 명이 참석한 첫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플루언서들의 이커머스 성공 전략과 1인 창업자를 위한 쉬운 쇼핑몰 솔루션 '스마트모드'가 공개된다.

강연자는 MCN 샌드박스네트워크의 창업자이자 250만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 '제스(본명 오은영)' 러브미모스트 대표, 화장품 3분 완판 신화로 유명한 오하이오후 대표 '고밤비(본명 김고운)', '낸시렐라(본명 김나현)' 등이다.

세미나에서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쇼핑몰 구축부터 상품관리, 마케팅 등 창업 전반에 걸친 1:1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카페24가 지난달 출시한 '스마트모드'의 활용법도 공개된다. 스마트모드는 상품 관리, 결제, 배송 등 쇼핑몰 운영의 핵심 기능을 담은 쇼핑몰 솔루션이다. /박현님 기자 ericabae1683@

케어하다 저소음·고출력 스탠드형 선풍기 출시

메이크샵과 몰테일을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센터는 자사의 생활건강 브랜드 'CAREHADA(케어하다)'가 저소음, 고출력 기능을 갖춘 스탠드형 선풍기(사진)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CAREHADA'는 코리아센터가 지난 1월 새롭게 론칭한 생활건강 브랜드로 회사는 앞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선보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출고가격은 7만1900원이다. /김승호 기자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 등 참여

대기업들, 中企 상생 스마트공장 보급 앞장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출범
상반기 8개 기업 210억 지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두산이 중소기업 등과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도 동참했다.

스마트공장 보급 등 제조 현장 혁신을 위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추진단)도 본격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세종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스마트공장 관련 유관기관 26명과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관 13개사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단 1호 과제인 '스마트공장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통해 협업하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40%를 부담하면 정부와 대기업이 각각 30%를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출범식 및 추진단 1호 과제인 '스마트공장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박영선 장관(왼쪽 7번재)이 참여 기업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원한다.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엔 4개 기업이 참여, 120억원을 지원했지만 올해엔 8개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이들은 6월 말까지 210억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이날 출범한 추진단은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3만개 보급하는 동시에 제조혁신 연구개발(R&D)·표준화 등을 종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초대단장은 민간 출신인 사단법인인 한국인터넷스토리4.0 박한구 전 협회장이 맡았다. 박한구 단장은 "스마트공장 사업을 추진하면 두 개 기관이 하나가 된 만큼 양 기관의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

로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실무 경험이 많은 박사급 연구인력을 채용해 그간 부족했던 정책지원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에서 스마트공장을 운영한 경험을 적극 활용해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의 베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보급이 늘어나면서 생산 현장에선 불량은 줄고, 생산성은 높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도입한 기업 1곳당 오히려 인력도 3명 씩 느는 등 고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7903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생산성은 30%, 품질은 43.5% 늘었다.

/김승호 기자